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정상,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공개 결정

□ 27개국 유럽정상들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그간 실시해 온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공개하기로 결정

-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 1,100억유로를 투입하고, 5,000억 유로의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채권의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수그러들지 못하자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.
- 미국 정부는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유럽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음.
 - 미국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19개 대형은행 중 10개 은행의 자본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며, 750억달러(900억원)의 자본보강이 필요하다고 공개한 바 있음.
- 유럽의 25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7월 중순 공개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5개의 영국계 은행이 포함된 것만 확인됨.

□ 그동안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개에 반대해 온 독일이 반대를 철회함으로써 유럽정상들의 전유럽 공개 합의가 가능해짐.

- 독일 정부는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개만이 유럽은행의 건전성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반대를 철회하기로 함.
 - 독일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잘못 해석될 경향이 크며,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음.
 - 그러나 그리스, 스페인 등 불량 정부채권 보유를 숨기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제반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함.

□ 스페인은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개를 천명함으로써 자국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유럽의 전격적인 공개 결정에 일조함.

-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45개의 비상장 저축은행 중 일부는 부동산시장의 붕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합병이 권고된다고 밝혔으며, 자본조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0억유로(200억원)의 은행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힘.

(Financial Times 6/16, 6/17)